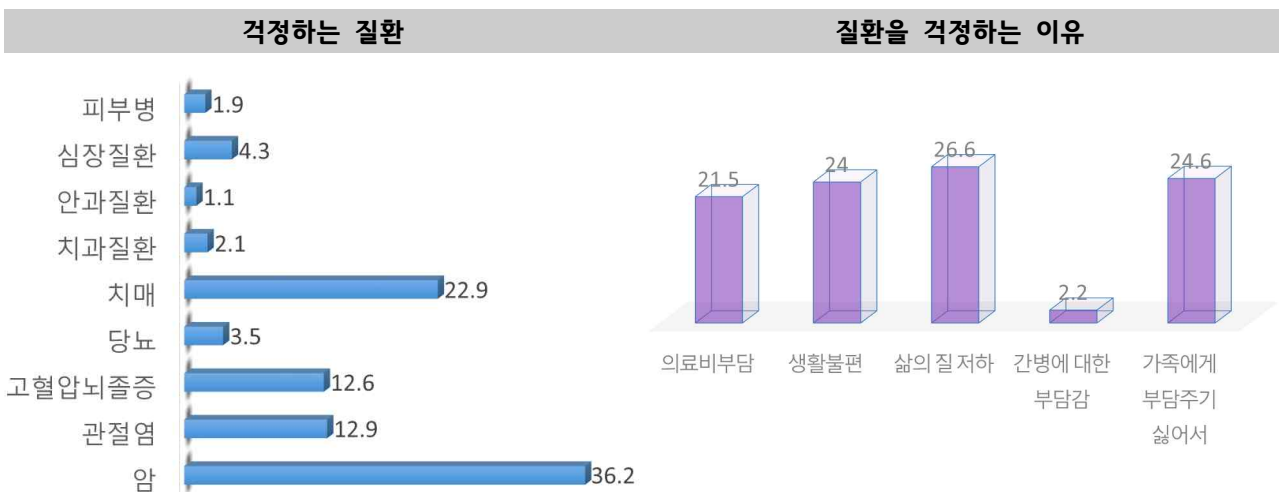


6. 보건, 의료

- ▶ 지난 1년(2016. 8. 31. ~ 2017. 8. 30.) 동안 군민의 15.2%가 흡연을 하며, 하루 평균 「14.7개비」를 피우고, 남자는 28.4%, 여자는 2.9%가 흡연을 함
- ▶ 지난 1년(2016. 8. 31. ~ 2017. 8. 30.) 동안 흡연자들 중 39.7%가 금연을 시도한 적 있으나, 금연을 못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52.9%)」임
- ▶ 지난 1년(2016. 8. 31. ~ 2017. 8. 30.) 동안 군민의 47.3%가 음주를 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25%정도가 일주일에 3~4회 이상을 마시며, 50%정도가 월 2~3회 이하로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지난 1년(2016. 8. 31. ~ 2017. 8. 30.) 동안 음주경험자들 중 절주나 금주를 시도한 적 있는 사람들은 18.3%이며, 81.7%가 절주나 금주를 시도하지 않았고 절주·금주를 못하는 주된 이유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62.9%)」임
- ▶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한 보건서비스는 「건강상담 서비스(44.2%)」, 「건강진단 서비스(41.8%)」 순이며, 군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은 「암(36.2%)」으로 질환을 걱정하는 주된 이유는 「삶의 질 저하(26.6%)」 때문



6. 보건 · 의료 부문

- 6 - 1 흡연 여부 및 흡연 정도
- 6 - 2 금연 시도 여부 및 금연을 못하는 이유
- 6 - 3 음주 여부 및 음주 정도
- 6 - 4 절주 · 금주 시도 여부 및 절주 · 금주 못하는 이유
- 6 - 5 필요한 보건 서비스
- 6 - 6 걱정되는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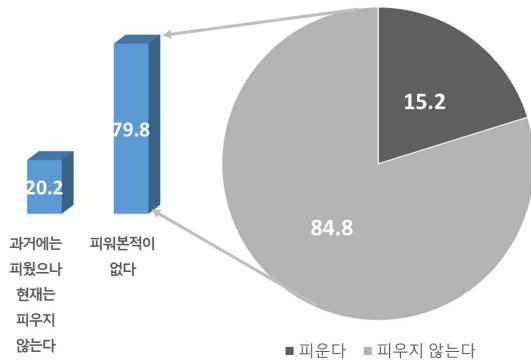
6 - 1. 흡연여부 및 흡연정도

곡성군 흡연자는 하루 평균 약 15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
2015년 대비 흡연여부와 흡연량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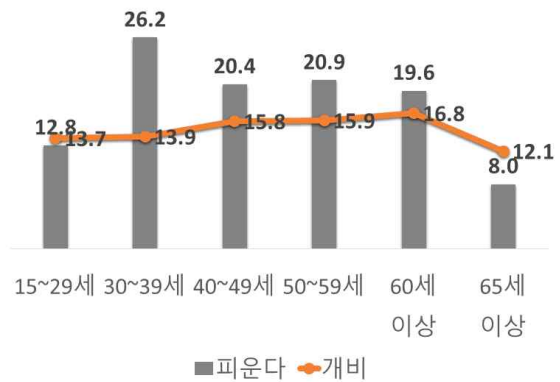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곡성군민의 '흡연여부'는 「피운다」가 15.2%이며, '하루 평균' 14.7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남

- 남자는 28.4%가 흡연을 하며 여자는 2.9%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루 흡연량은 남자가 15.1개비, 여자가 10.8개비로 나타남
- 미혼의 17.1%가 흡연을 하며,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9.7%가 흡연을 하는 반면에 취업인구 약 20%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흡연 여부 및 흡연 정도]



[연령별 흡연 여부 및 하루 평균 흡연량]



<표 6-1> 흡연 여부 및 흡연정도

(단위: %)

구 분	계	피움		피우지 않음		
		계	하루 평균 흡연량	계	끊었음	피운 적 없음
2015년	100.0	14.3	14.1	85.7	22.2	77.8
2017년	100.0	15.2	14.7	84.8	20.2	79.8
<성 별>						
남 자	100.0	28.4	15.1	71.6	44.5	55.5
여 자	100.0	2.9	10.8	97.1	3.4	96.6
<연 령 별>						
15~29세	100.0	12.8	13.7	87.2	7.5	92.5
30~39세	100.0	26.2	13.9	73.8	17.3	82.7
40~49세	100.0	20.4	15.8	79.6	19.1	80.9
50~59세	100.0	20.9	15.9	79.1	25.5	74.5
60세 이상	100.0	19.6	16.8	80.4	28.3	71.7
65세 이상	100.0	8.0	12.1	92.0	22.1	77.9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6 - 2. 금연 시도 여부 및 금연이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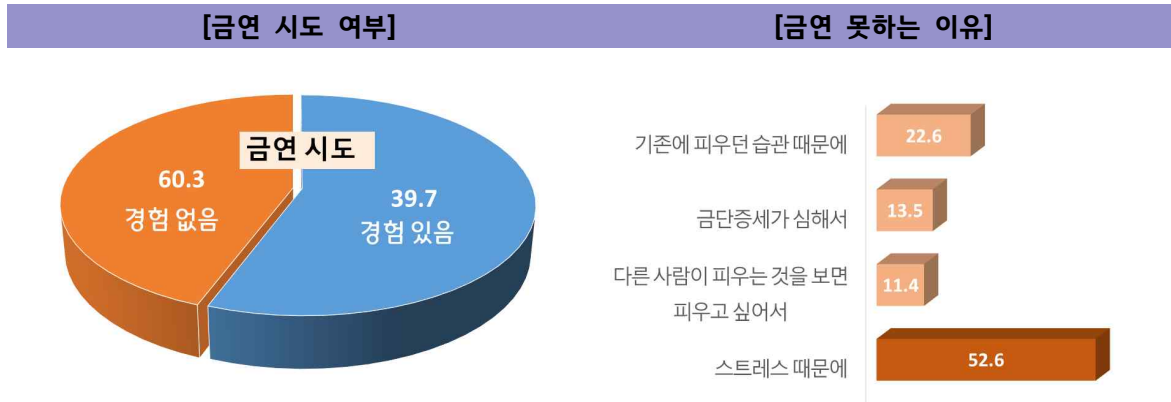
"금연을 못하는 이유"로 「스트레스 때문에」가 52.6%

• 금연시도 여부에서 「있다」가 39.7%, 「없다」가 60.3%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는 40.4%가 금연을 시도한 반면에 여자는 33.9%가 금연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의 경우, '30~39세'는 73.6%, '60~64세'는 85.2%가 금연을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65세 이상'은 43.9%가 '19~29세'는 61.7%가 금연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남

• 금연을 못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에」, 「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 순으로 나타남

- 「거의 매일」 항목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1주일에 두세 번 정도」(32%), 「1주일에 한 번 정도」(16.4%) 순으로 나타남



<표 6-2> 금연시도 여부 및 금연이 어려운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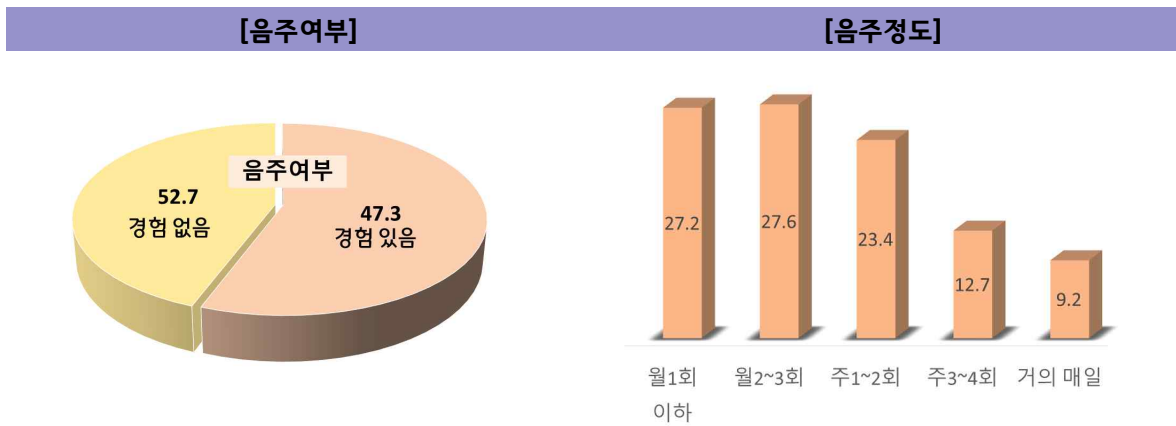
구 분	금연시도 여부			금연이 어려운 이유					
	계	있다	없다	계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우는 것을 보면 피우고 싶어서	금단증세가 심해서	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	기타
2017년 <성 별>	100.0	39.7	60.3	100.0	52.6	11.4	13.5	22.6	-
남 자	100.0	40.4	59.6	100.0	56.7	9.1	12.8	21.4	-
여 자	100.0	33.9	66.1	100.0	8.4	35.7	21.0	35.0	-
<연 령 별>									
15~29세	100.0	61.7	38.3	100.0	36.0	23.2	25.9	14.9	-
30~39세	100.0	26.4	73.6	100.0	100.0	-	-	-	-
40~49세	100.0	52.0	48.0	100.0	60.2	-	13.3	26.6	-
50~59세	100.0	34.3	65.7	100.0	63.5	21.4	7.5	7.5	-
60세 이상	100.0	14.8	85.2	100.0	50.0	-	-	50.0	-
65세 이상	100.0	43.9	56.1	100.0	27.6	9.4	16.5	46.4	-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6 - 3. 음주 여부 및 음주 정도

지난 1년 동안 곡성군민의 10명중 약 5명이 음주

- 지난 1년('16. 8. 31.~ '17. 8. 30.)동안 음주여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47.3%, '없다'는 응답이 52.7%로 나타남
- 지역별의 경우, 「옥과권」에서 50.9%로 가장 음주를 많이 하고, 「곡성권」 47.5%, 「석곡권」 40.6% 순으로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자는 60.8%, 여자는 34.6%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39세」가 80.4%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65세 이상」이 27.0%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6-3> 음주여부 및 음주정도

(단위: %)

구 분	계	음주여부							음주정도			
		마심	소계	월1회 이하	월 2~3회	주 1~2회	주 3~4회	거의 매일	마시지 않음	소계	끊었음	마신적 없음
2 0 1 7 년	100.0	47.3	100.0	27.2	27.6	23.4	12.7	9.2	52.7	100.0	34.3	65.7
< 지역 별 >												
곡 성 권	100.0	47.5	100.0	32.3	25.6	23.0	9.2	9.9	52.5	100.0	31.8	68.2
석 곡 권	100.0	40.6	100.0	16.9	32.5	25.3	18.0	7.4	59.4	100.0	45.6	54.4
옥 과 권	100.0	50.9	100.0	26.0	27.7	22.9	14.3	9.1	49.1	100.0	29.6	70.4
< 성 별 >												
남 자	100.0	60.8	100.0	19.1	23.5	26.9	16.9	13.6	39.2	100.0	49.0	51.0
여 자	100.0	34.6	100.0	40.5	34.3	17.6	5.8	1.9	65.4	100.0	26.0	74.0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49.8	100.0	35.8	38.5	13.5	10.9	1.3	50.2	100.0	8.5	91.5
3 0 ~ 3 9 세	100.0	80.4	100.0	33.5	24.1	19.8	19.0	3.6	19.6	100.0	46.5	53.5
4 0 ~ 4 9 세	100.0	59.5	100.0	27.7	24.9	29.7	13.1	4.6	40.5	100.0	51.3	48.7
5 0 ~ 5 9 세	100.0	61.6	100.0	23.5	27.5	27.9	14.1	7.0	38.4	100.0	35.0	65.0
6 0 세 이상	100.0	45.7	100.0	21.1	20.4	25.1	9.7	23.7	54.3	100.0	35.0	65.0
6 5 세 이상	100.0	27.0	100.0	22.3	26.5	22.3	8.8	20.0	73.0	100.0	37.2	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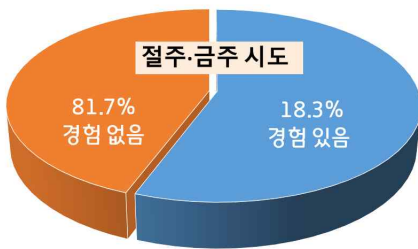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6 - 4. 절주·금주 시도 여부 및 절주·금주를 못하는 이유

"절주·금주를 못 하는 이유"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지난 1년간 곡성군민의 「주1회 이상」 음주를 한 군민을 대상으로 '절주·금주를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8.3%, '없다'는 응답이 81.7%로 나타남
- '절주·금주를 못한 이유'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가 62.9%로 가장 많이 나타남
- 특별히 '곡성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절주·금주를 못하는 이유에 「스트레스 때문에」가 3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절주·금주 시도 여부]



[절주·금주를 못하는 이유]



<표 6-4> 절주·금주 시도여부 및 절주·금주가 어려운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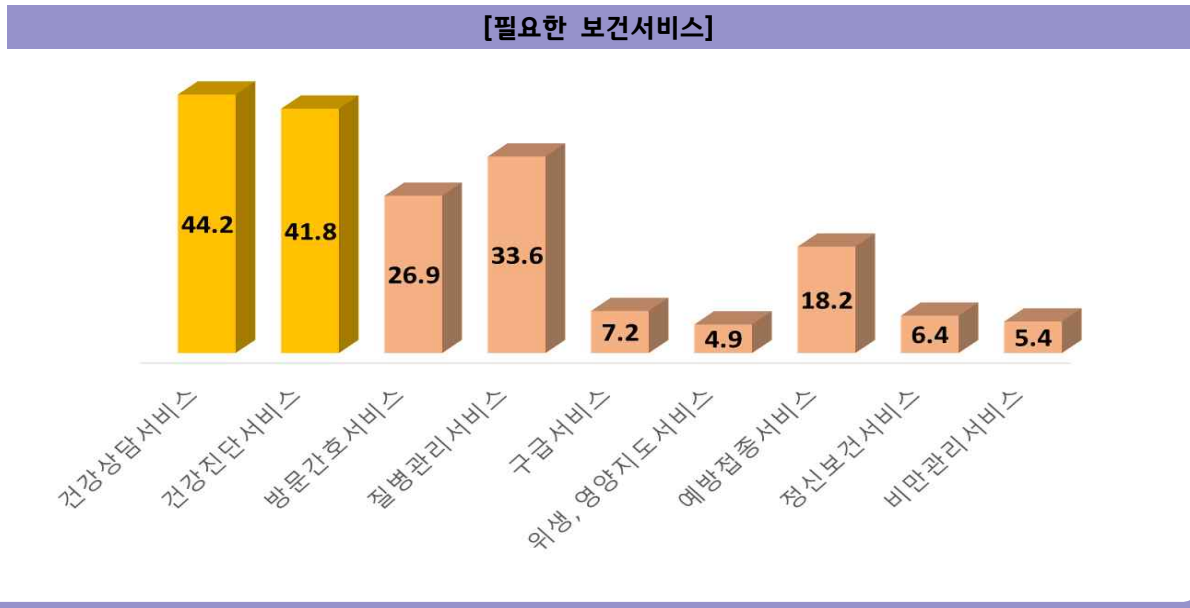
구 분	절주·금주 시도 여부			절주·금주가 어려운 이유				
	계	있다	없다	계	스트레스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금단증세가 심해서	기타
2015년	100.0	28.8	71.2	100.0	28.7	59.3	4.4	7.6
2017년	100.0	18.3	81.7	100.0	28.6	62.9	5.5	3.0
<지역별>								
곡성권	100.0	22.2	77.8	100.0	38.5	56.7	2.2	2.6
석곡권	100.0	15.7	84.3	100.0	20.5	63.3	16.2	-
옥과권	100.0	14.8	85.2	100.0	15.4	73.5	5.8	5.4
<성별>								
남자	100.0	19.2	80.8	100.0	29.9	64.2	3.3	2.6
여자	100.0	16.7	83.3	100.0	26.1	60.5	9.4	4.0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6 - 5. 필요한 보건 서비스(복수응답)

"필요한 보건 서비스"의 1순위로 「건강상담서비스」가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곡성군민의 '필요한 보건 서비스'로 「건강상담서비스」가 44.2%로 가장 높으며 「건강진단서비스」가 41.8%로 나타남
- 곡성권은 「건강상담서비스」와 「건강진단서비스」가 비슷한 반면에 석곡권은 「건강상담서비스」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옥과권은 「건강진단서비스」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33.4%)이 남성(19.9%)에 비해 「방문간호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6-6> 필요한 보건서비스(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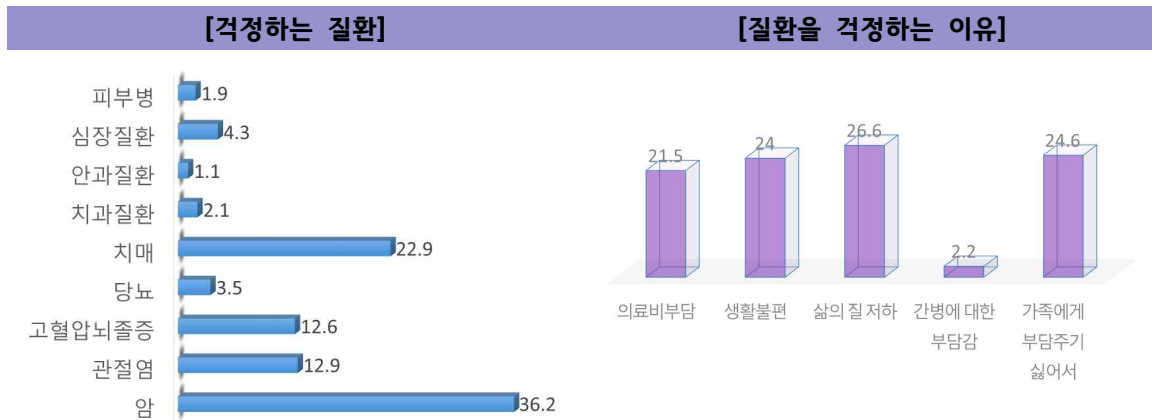
구분	건강 서비스	강 담 서비스	건 진 서비스	강 단 서비스	방 간 서비스	문 호 서비스	질 관 서비스	병 리 서비스	구 서 서비스	급 서비스	위 생, 영 양 지 도 서비스	영 예 접 종 서비스	방 서 서비스	정 보 서비스	신 건 서비스	비 관 서비스	만 리 서비스	기 타	
2017년 <지역별>	44.2	41.8	26.9	33.6	7.2	4.9	18.2	6.4	5.4	0.3									
곡성권	42.4	39.4	20.1	39.8	6.4	6.0	17.0	8.3	6.7	0.5									
석곡권	56.3	30.8	44.3	24.5	4.6	4.6	19.5	6.3	3.4	0.2									
옥과권	39.4	51.0	25.3	31.3	9.9	3.7	18.9	4.1	5.0	0.2									
<성별>																			
남자	44.8	47.5	19.9	34.2	7.0	6.0	17.3	5.3	4.5	0.6									
여자	43.6	36.4	33.4	33.2	7.5	3.8	19.0	7.4	6.3	0.1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6 - 6. 걱정되는 질환 및 이유

곡성 군민의 걱정되는 1순위 질환은 「암」이 36.2%이며
 걱정질환 이유는 「삶의 질 저하(26.6%)」때문

- '걱정되는 질환'에는 「암」이 36.2%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치매」가 22.9%로 나타남
 - 성별에서 남자는 암(40.4%)이 여자는 치매(29%)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에는 「삶의 질 저하」가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와 「생활의 불편」은 비슷하게 나타남



<표 6-7>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 (단위: %)

구분	계	의료비 부담	생활 불편	삶의 질 저하	간병에 대한 부담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기타
2017년 <지역별>	100.0	21.5	24.0	26.6	2.2	24.6	1.1
곡성권	100.0	21.1	23.0	29.4	1.1	24.5	1.0
석곡권	100.0	20.6	33.1	17.0	3.8	24.3	1.3
옥과권	100.0	22.6	20.1	28.6	2.7	25.0	1.0
<연령별>							
15~29세	100.0	22.5	27.5	33.9	-	14.9	1.2
30~39세	100.0	22.1	8.5	27.6	1.8	38.2	1.8
40~49세	100.0	20.6	25.2	29.3	3.7	19.9	1.4
50~59세	100.0	22.1	16.7	35.4	1.3	23.3	1.1
60세 이상	100.0	20.0	27.6	26.8	3.2	22.4	-
65세 이상	100.0	21.3	28.6	17.5	2.9	28.7	0.9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